

OpenDoors

2020. 08. Vol. 220

박해와 선교현장

라오스 *Laos*

한국전쟁 70주년 북한기도 특집

TALK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끝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신현필 목사 (분당임마누엘교회 담임/한국오픈도어 공동대표)

아직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비신자들만을 위한 것이란 생각을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통해 사람과 교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하여, 사도 바울은 다가를 순교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한 먼 훗날 이 시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각성을 촉구하며 준엄한 명령과 권면을 소중히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고난을 무릅쓰고 그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도록 용기를 주며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네로가 로마제국의 황제였을 때, 기독교에 대한 그의 박해가 절정에 이르렀을 즈음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딤후1:8)고 권면했습니다. 복음을 따르는 것은 고난을 초래하는 일이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우리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은 우리는 또한 그로 인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고 이 세상은 악해서 그를 미워하며 그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거부할 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하고 거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로마제국의 네로 황제 시대의 박해와 같은 박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크고 작은 고난과 장애물들을 감수하고 통과해야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없으니 마음고생이 큼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받은 이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상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나라 백성이 세상 사람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붙잡히시기에 앞서 마지막 긴 기도를 드리시기 바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 그리고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의와 진리의 필연적인 승리를 확증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신앙을 넘어서 오순절 성령의 능력과 충만의 신앙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한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복음을 말과 삶으로 증언하며 승리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구 드리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계 12:10-11).

CONTENTS



04



06



10



14



16

04 북한 선교 현장 - 나의 출애굽기 (26- 마지막회)

06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북한을 위한 기도 - 1

10 박해와 선교현장 - 라오스(LAOS)

14 라오스 오픈도어 사역

16 현장스토리 1 - 라오스의 '숨' 형제 이야기

18 현장스토리 2 - 라오스의 '사방' 형제 이야기
무속인에서 박해받는 주의 종으로

20 뉴스와 업데이트

22 코로나(COVID19) 긴급구호 캠페인

23 한국오픈도어 연중캠페인/광고

OpenDoors 2020년 08월호 | 통권 220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안창호 이사

사무총장 _정규일 목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최임경, 문민환, 전신애, 최유리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제이앤피

〈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결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북한 캠페인: KB 국민은행 029301-04-16918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 예금주 공동: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의 출애굽기 (26- 마지막회)

드보라



사역 도중에 항상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다.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었다. 그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춘화라는 14살 여자아이다. 이 아이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았고 결핵과 이로 인한 합병증 진단을 받았다. 영양 부족 때문이었다. 한국 같았으면 아무 병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병이 커졌고 중국돈 10만 위안을 써도 완치가 어려웠다. 남방 쪽으로 옮겨서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아이의 엄마는 태어난지 4개월만에 북송당했다. 중국 공안이 조사가 나오고 이 엄마도 공안들의 눈을 피해야 했는데 아이가 막 태어났을 무렵에 결국 공안에 게 발각이 되었다. 아기가 태어난지 보름인데 어미 없이 어찌 지내겠냐며 2-3달만이라도 말미를 달라고 사정했더니 공안이 혀를 차고 갔다. 그때 바로 도망을 갔으면 되었을텐데 그 엄마는 일단 공안이 갔으니 안심을 하고 애를 키우다가 4개월만에 다시 찾아온 공안에 의해 잡혀갔다.

그 당시 중국 시골에서는 우유 구하기가 힘들었다. 아기도 제대로 먹이지 못해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어려서부터 자주 아팠다. 그렇게 원 체질이 허약하다 보니 10살때부터 비실비실 했는데 결핵이 있었는지 모르다가 어느날 갑자기 피를 토해서 입원하게 된 것

이다.

중국 병원엔 돈을 보증금 조로 선불로 지급을 해야 거기서 돈을 감하면서 치료를 해줬다. 그 당시는 후원자가 부족할 때라 백방으로 소식을 알리며 치료를 위한 금액을 모았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호응해주셔서 제대로 치료받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키고 나중에는 남한에 데리고 오자 했는데 차도가 없었다. 여기서 안되겠다는 생각에 남한으로 가능한 한 빨리 데리고 오기로 하고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의 병세가 위중해졌다. 그리고 결국 고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갔다.

춘화가 천국 갈 때 옆에서 돌보시던 함께 사역하신 분 말에 의하면 이 아이는 죽을 때까지 말을 자유롭게 했다고 했다.

“한국 가고 싶은데... 언제 가요?”

“곧 갈 수 있단다. 사람들이 애쓰고 있어요.”

“큰아버지, 저는 한국 못 갈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나약한 이야기를 하니.”

“그래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더니 평안하게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했다.

그 아이는 아프기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도움을 받아 신앙생활을 했다. 다행히 마지막까지 아이는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 많은 사람의 관심과 후원을 받고 주님 품으로 갔으니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그나마 행복한 생활을 했다고 위로해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슬픔이 남아있는 것은 어찌 할 수 없는 일이다. 눈물을 흘리며 나머지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힘쓰리라 다짐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탈북자로서 이 땅에서 얻은 자유의 가치를 보여주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로 한국까지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렇게 주어진 자유가 동시에 큰 유혹이 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하면 그 은혜를 잊고 돈의 유혹을 따라, 맘몬을 좇아 살기 쉽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낀다. 그러나 하나님을 놓친다면 우리가 가진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우리 탈북자의 상황을 출애굽기에 자주 비유한다. 출애굽이라고 할 때 북한땅을 애굽이라고 본다면 중국은 광야 생활, 남한을 가나안이라고 볼 수 있겠다.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그러나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성경의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기록과 같이 가나안에서도 여호와와 군사로써 일해야 한다.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군사로 훈련시키시고 준비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하나님의 은혜로 종종 한반도를 벗어나 열방을 다니는 기회가 있다.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가는 것이 나에게 익숙한 일이다. 이제는 중국뿐 아니라 대만, 미국, 중동 지역까지 방문하게 하신다. 부유한 미국도 인상적이었고 척박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오랜기간 섬긴 이스라엘 땅도 밟았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드리지 못한다고 들었다. 비록 이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

을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기도했다. 지금은 완고하게 예수님을 거절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내 눈에 들어온 나라는 이집트였다. 바로 그 고대 애굽의 후예들이다. 이집트는 자원도 많고 관광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척박함이 있었다. 이집트를 보면서 나는 북한을 떠올렸다. 물론 이집트가 북한보다는 잘 살겠지만, 북한도 석탄도 많고 자원도 풍부하지만 가난과 척박함이 있다. 문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인간이 가로막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피라미드와 �핑크스의 거대 유적을 보면서도 놀라움 보다는 태양신의 숭배가 연상되었다.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떠받드는 북한이 연상되었다. 우상숭배의 악한 죄악이 끊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이집트와 연관된 연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큰 감동이 있었다. 바로 콕트 교회를 방문했을 때였다. 콕트 교회의 순교와 희생을 보면서 이 땅에 하루속히 박해가 멈추도록 기도했다. 그러면서 핍박받는 북한을 생각했다. 방문했던 카이로 모카탐의 쓰레기마을은 이집트 정교회 즉 콕트 교회 성도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다. 비록 성도들과 교회가 쓰레기 더미에 있었지만 마음이 시원하고 교회 성도들을 보는데 천국의 삶을 산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식과 기도로 고난을 이겨내는 이들이지만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내 모습이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었다. 앞으로 이집트와 이집트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다.

남한에 도착했지만 나의 출애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지경을 점점 넓히심을 느낀다. 부족한 자라도 사용하고자 하심을 경험한다. 능력은 보잘 것 없지만 너는 내 것이다(사43:1-2) 말씀해주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롬8:28)는 약속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끝>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 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전화: 02-596-3171 팩스: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북한을 위한 기도 - 1

국제오픈도어 본부에서는 한국전쟁 70주년에 맞추어 북한을 위한 “7일 기도” 특집 패키지를 만들어 전세계 크리스천들과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일부터 4일까지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서 자라난 역사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셨는지를 살펴봅니다. 5일에는 4대째 내려오는 북한 성도의 강력한 간증을 소개하고, 6일에는 북한 성도들을 섬기는 오픈도어 프로젝트들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7일에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비밀 편지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오픈도어 사역자의 인터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25p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라서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은 건너뛰며 편집하여 2회에 걸쳐 실습니다.

DAY 1. 만수대 언덕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

평양이 생명의 책을 받다

19세기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에 도착하여 순교했습니다. 순교 직전에 그는 가지고 온 중국 성경 일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1890년대 평양에 온 사무엘 모팻 선교사는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성경을 받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한국 초대 교회들 중 하나인 ‘넬다리골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 넬다리골 교회는 18개 교회로 부흥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1907년 부흥으로 유명한 ‘장대현 교회’입니다.

원산과 평양의 회개와 부흥운동

1903년 북한의 동쪽 도시 원산의 한 작은 성경공부 모임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이 서쪽 끝 평양까지 퍼져



‘1907년 평양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부흥이 있기까지는 수개월간 새벽기도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를 시작으로 500명 이상의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평양대부흥의 불길은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 나가 한국기독교의 새시대를 열었습니다.

일본 우상 신사참배 가결

평양대부흥 3년 후인 1910년, 한일합병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국권을 잃은 조선의 마을마다 일본은 신사를 세우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200개 이상의 교회가 폐쇄당하고, 2000명 이상의 성도가 투옥되었으며 기록된 수만 50명 이상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1938년 9월10일, 한때 장대현 교회의 일부였던 평양 ‘서문밖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지금 만수대 언덕은...

2차 세계대전 끝에 일본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서 김일성 공산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김일성 치하에서 ‘장대제 언덕’은 ‘만수대’로 개명되었습니다. 김일성의 만수무강

을 빈다는 뜻입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장대현 교회는 찾을 수 없습니다. 장대현 교회는 파괴되고 그 자리에는 2개의 거대한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평양 한 가운데, 높이가 20미터에 달합니다.



북한의 위한 기도 - 회개

한 오픈도어 사역자가 하나님께 “왜 북한을 버리셨나요?”라고 물으니 마치 하나님께서 “왜 북한은 나를 버렸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것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북한을 대신하여 회개하고 북한땅이 고침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지라”(대하7:14)

DAY 2. 예수 이름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일본으로부터 해방, 그러나 박해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다

1945년 8월15일, 일본이 패망하고, 이틀 후인 8월17일 예수 이름으로 투옥되었던 성도들이 풀려나왔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집으로 가는 대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했던 산정현 교회로 가서 한국교회의 재건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소련군이 주둔하는 북한에 1945년 10월, 김일성이 등장해 소련의 도움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곧 북한의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은 김일성이 이끄는 공산주의자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11월에는 용암포제일교회가 농부와 노동자들의 공격을 받아 장로1명이 순교하고 교회건물이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 일로 신의주에서 약 5000명의 주로 크리스천 학생들이 공산주의 반대 시위를 하였으나 소련군에 의해 사살되고 체포되었습니다. 다음해 1946년 11월 공산당이 주일에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자 교회와 성도들이 반대하며 보이콧을 했고, 체포와 투옥을 당했습니다. 이때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은 공개적으로 통제와 억압을 당했습니다. 주일에 모임과 강연을 열어 불참하는 크리스천들은 소환되어 자아비판을 해야 했고, 기독교 학교들은 폐교되거나 운영권을 빼앗겼습니다. 강제로 노동당에 입당해야 하고 거부하면 체포를 당하거나 시베리아와 같이 외딴 곳으로 추방당하거나 살해당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더 통제하기 쉽도록 큰 교회에 통폐합되었습니다. 예배당에 김일성 사진을 걸어 놓을 것을 명령했고, 거부는 체포와 고문과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 위에, 1958년 9월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 - 지하로 들어간 교회

20세기 중반에 시작된 북한의 지하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결코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살아있습니다. 다음세대로 복음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고 교회를 강하게 하시기를,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훈련되기를,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이들이 준비하도록 기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4)

DAY 3. 힘과 승리는 주님께 속하다

남침과 휴전, 박해...

1940년대의 기독교박해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부인하거나 남한으로 이주해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930년대말 한반도 전체에 600,000명의 크리스천들이 있었고 그중 75%가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해로 인해 그 수는 약 300,000명으로 줄었습니다.

1950년 6월25일 주일, 남북을 갈라놓은 38선의 남쪽 진영으로 북한의 포격이 울렸고 “6.25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납치되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생매장을 당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투옥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죽음을 택해야 했습니다. 대도시교회들은 북한의 승리를 축하하는 승전 기념예배를 실시하도록 강요 받았고 설교 중에 축하를 보이지 않는 목사들은 체포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평양에서는 김일성의 외삼촌인 강양욱이 주재하는 기독교인대회가 열렸고, 대회에서는 한반도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김일성의 공산국가에 충성을 바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1950년9월 UN군의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10월말에는 서울 뿐 아니라 평양도 UN군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각지에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도시의 탈환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11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평양은 다시 북한군으로 넘어갔고 UN군의 승리를 축하하던 성도들은 처형당했습니다....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지고 휴전선이 그어졌습니다. 김일성은 이날을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로 정하였습니다.

전쟁 동안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약 1,200명의 성도들이 전쟁 동안 순교했습니다. 그 중 30명은 예배당을 지키려다가 총살당했고, 500명은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했기 때문에 처형당했습니다. 전쟁 전에 북한에 약 3000 개의 교회가 있었으나 상당수가 파괴되었고 남은 교회들은 학교나 주체사상 센터와 같은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신성분 조사 - 주민분류와 박해

전쟁이 끝나고, 김일성은 절대권력강화를 위해 크리스천들을 스파이와 반동분자들로 낙인찍어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분조사를 통해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분류하는데, 모든 크리스천은 적대계층에 속합니다. 적대계층은 죽임을 당하거나 모르는 곳으로 갑자기 사라지기도 합니다. 출신성분은 대대로 세습됩니다. 전쟁 후 북한에서 기독교인은 10만에서 20만 명이었을 것으로 추산됩니

다. 성경을 비롯한 모든 기독교 자료들도 북한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 -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다

엄격한 통제와 탄압 속에서 북한교회 지도자들은 지하교회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난 가운데 성도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훗날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북한 지하교회를 붙드시고 힘과 용기와 지혜와 승리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전 15:57)

DAY 4.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세계 최악의 박해자, 김일성 우상화의 주체사상

출신성분제 도입 후,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통한 자기의 신격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것 뿐 아니라 모든 인민이 단 하나의 포인트, 위대한 수령 김일성에 모든 충성을 바치는데 이용되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 김일성은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일과 김정은으로 권력이 승계되면서 이 10대원칙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다시금 이들을 우상화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북한의 모든 학교 학생들은 이 3명의 신격화된 생애와 주체사상을 배웁니다. 모든 주민들이 매주 ‘생활총화’에 참여해 김일성의 가르침에 따른 자아비판을 하며 감사할 일이 있어도 김일성에게 감사합니다. 삶과 죽음도 김일성과 당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위장 교회

1960년대 말부터, 사상, 기술, 문화의 3분야에서 주체를 이룩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3대혁명 붉은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부 지하교회 성도들까지 해당되는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는데, 김일성에 대한 충성 맹세 조건에 서명한 이들도 있고 거부하고 사면

을 받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유화책으로 김일성은 1940년대 만들어졌던 ‘조선기독교연맹’을 부활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공산당 선전 도구 역할만 있었지만, 또한 그시기에 지하교회들도 재조직되고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기적의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 후로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던 해, 냉전이 종식되고 동서화합이 시작되자 북한은 이듬해,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열고 177개국 대표들을 초청했습니다. 또 다른 선전 전략으로 평양에 ‘봉수교회’와 ‘철골교회’를 건축하고 빌리그래함과 같은 기독교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위장교회에는 당이 지명한 자들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교회 근처에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성경책도 인쇄하여 교회 안에 전시했지만 아무도 성경을 밖으로 가지고 가서 개인적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은 평양의 이 교회 주일예배 참석을 미리 신청하지 않았더니 주일에 교회문이 닫혀 있더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광객은 미리 참석 신청을 한 관광객 숫자만큼 빈자리를 준비해 놓았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이 두 교회는 지하교회 성도들에 대한 박해를 조금도 덜어주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순례자의 길로

1990년 중반 북한에서 수백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가뭄과 홍수의 재난과 경제 위기로 배급이 끊어졌습니다.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일은 주민들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 국가적 대기근에서 살아남기 위해 북한의 수십만명이 먹을 것을 찾아 중국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전의 통제가 느슨해지고, 성도들은 다시 한번 지하교회 네트워크를 재조직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온 기회였습니다. 중국에 양식을 찾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왔습니다. 식량과 돈 뿐 아니라 성경과 기독교자료들을 옷 속에 감추어 왔습니다. 중국에서 성경공부를 한 사람들



은 훈련된 교회지도자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불신자였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들과 손자에 의한 더 심한 박해

2000년대 초, 대기근이 지나가자, 김정일은 중국국경을 강화하고 주변에 거대한 수용소를 세우고 하루에 약 4,000명씩 수감했습니다. 중국정부와 협약해서 불법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을 색출하여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국경지역의 모든 교회들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한 조사에 의하면, 현재까지 400,000명의 탈북민들이 이렇게 북송되었다고 합니다. 송환된 이들은 세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남한 사람과 접촉했는가?”, “남한 드라마를 보았는가?”, “기독교와 접촉했는가?”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은 정권에 위협 요소가 되는 모든 것을 더욱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화된 통제는 결국 크리스천들에 대한 박해의 강화가 되었습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 -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내가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도 실은 나는 주님으로 둘러싸여 있어요.”라고 누군가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북한의 성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한 북한성도는, 겨자씨만한 믿음의 기도에도 주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의 뜻을 따라가기를 기도하며 인내로 고난의 길을 가면 소망이 저절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 49:15)

라오스

Laos



인구 : 7,064,000 명

주요 종교 : 불교(52.7%), 부족신앙(41.9%)

기독교 인구(카톨릭 등 포함) : 227,000 명(3.2%)

기독교박해 순위 : WWL2020- 20위, WWL2019- 19위

기독교박해 지수 : 72점

주 박해 요인 : 부족공동체, 공산당과 공산화후 통제사회, 종교적 민족주의

라오스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

라오스는 아직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고수하는 전 세계 5개 국가 중의 하나이다. 서구의 영향력을 반대하며 기독교 소수공동체에 엄청난 압박을 가한다. 소련붕괴 후 개방이 시작되고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로 최대 투자자인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민사회의 자유의 측면에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 공산당은 모든 종교활동을 심하게 감시한다. 모든 모임은 당국에 알려야 하고, 가정교회들은 “불법 집회”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밀리에 활동해야 한다. 정부가 승인한 ‘라오 복음주의 교단’(LEC) 소속 교회들의 75%가 영구적인 교회 건물이 없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가장 큰 박해를

받는다. 또한 그들은 (불교-정령숭배의) 지역공동체에서 벗어나는 죄를 지은 자들로 여겨져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라오스 시골에서는 보통 3대가 한 지붕 아래 같이 산다. 이러한 공동체 구조 속에서 마을 지도자와 당국자들은 연합하여 공동체를 선동하여 크리스천을 박해한다.

공산주의는 라오스에 어떻게 들어왔나?

‘파테트 라오(라오의 땅)’라고 불리는 한 공산주의 단체가 1940년대와 50년대에 프랑스 지배에 저항하는 단체로 존재를 드러냈다. 라오스는 1893년 이후로 프랑스 지배 하에 있었다. 파테트 라오는 그 당시에 좌파로 여겨졌고, 그들은 식민지배자들에 맞서 베트남인들과

나란히 싸웠다. 그들은 자유를 원했고 저항이 있었다. 1950년대에, 프랑스가 라오스에서 철수했고, 라오스는 입헌군주체제로 남았다. 프랑스의 철수 후에, 파테트 라오는 이제 군주제에 반대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공산주의의 전파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라오스의 군주제를 지원했다. 그러나 당시는 공산주의가 발호할 때였고 라오스 군주제와 파테트 라오는 계속 충돌했다.

1964년,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면서 라오스는 십자포화 속에 갇혔다. 라오스 일부는, 베트남군이 물자를 보급하는 도로망인 호지민 루트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라오스는 수백만 개의 폭탄투하를 받고 폐허가 되었다. 라오스에 대한 폭격은 1973년에 끝났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철수 했고, 공산주의는 점점 더 막강해졌다.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PDR)의 설립은 1975년 12월에 이루어졌고, 같은 해에 라오스는 공산화되었다.

라오스에서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가?

• **사적인 영역** : 크리스천들이 직계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모든 대화가 개종을 시키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위협하다. 개종 강요는 라오스에서 불법이다. 특히 시골에서는 가족들과도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모든 크리스천 모임들이 당국에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반드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국이 효과적으로 모임을 제지하거나 불법으로 처리할 수 있기 위함이다. 마을에는 선출된 지도자(포 반 또는 나이반)와 2명의 보조자들이 있어 모든 활동을 감독하고 문화를 보존하고 평화를 유지한다. 당국은 이들을 이용하여 크리스천들을 통제하고 추방한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이미지나 물건을 소지하면 지역의 ‘영’들을 노하게 해서 불행을 불러온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고 추방의 위기에 놓인다. 라오스 외부에서 구입한 성경을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부족어 번역 성경을 소지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면밀한 감시를 당한다. 보통 3대가 방한 칸의 집에서 같이 사는 시골에서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신앙행위를 하기가 어렵다. 바로 신체적 언어

적 학대를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기 쉽다.

• **가정 영역** : 모든 학교 교육에서 크리스천 자녀들도 반기독교 교육에 참석하도록 압박을 받는다. 불교는 라오 문화의 일부로 여겨지기 때문에 학교 정규 커리큘럼의 일부이다. 한 보고에 의하면 크리스천 학생들도 필수적으로 불교사원의 불교의식에 직접 참가하도록 했다.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 때문에 학교 입학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졸업을 하더라도 크리스천은 직업을 구하기 어려우니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듣는다. 기독교 세례의식을 행하기 어렵다.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놀림과 차별을 당하다가 자퇴를 하기도 한다. 시골에서 크리스천의 장례 또한 제재를 받는다.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천의 경우, 마을의 신들을 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불교의식도 겸해서 장례를 치르도록 압박을 받는다. 크리스천은 가족증명서나 신분증이 몰수를 당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 마을의 장이 신앙을 이유로 “가족증명서”에 필요한 절차인 추천을 거부한다.

• **지역공동체 영역** : 크리스천들은 기관이나 포럼 등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한다. 적어도 3개월마다 지역공동체의 모임이 있는데 크리스천들은 조직적으로 배제된다. 뿐만 아니라 당국자들은 이 모임들을 이용해서 크리스천들의 대한 위협을 경고하고 지역공동체가 크리스천들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종용한다. 수도 비엔티안과 같은 도시에서조차도 크리스천들은 공동체 모임에서 배제된다. 크리스천들은 고용기회를 박탈당하고 크리스천 사업자는 차별을 당한다. 고용은 보통 추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 추천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크리스천임을 숨기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WWL2020 보고 기간 보고에 의하면, 공장근로자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신앙 때문에 해고당했다. 또한 농장 근로자들이 마을 지도자로부터 일당을 받지 못했다. 마을지도자들은 당국자들과 함께 크리스천을 지역에서 아예 제거하기로 결심을 한 듯하다. 크리스천 모임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크리스천 소유의 차량이나 기계를 몰수당하기도 한다. 정부 관련 서

류를 발급받으려면 추가로 돈을 더 내야하기도 한다. 체포되면 석방되기 전에 벌금을 내야 한다. 압수된 소지품을 찾아오기 위해서도 벌금을 내야 한다. 불교와 정령숭배 의식에 참석을 강요 받으며, 거절하는 경우에는 마을 종교지도자의 저주와 비난을 받는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꺼린다.

• **국가영역** : 2003년 개정된 헌법은 모든 종교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하면서 특별히 불교도와 승려들에 대한 보호를 언급했다. 제 43조는 라오 시민은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권리와 자유가 있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법령 92항은 모든 종교 활동에 대해 정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한다. 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어떤 활동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개종과, 설교, 교회 활동은 모두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정부는 좀처럼 교회 활동을 허가하지 않는다. 2016년 8월에 법령 92항은 315항으로 대체되었다. 이 법령은 정부를 종교 활동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로 지정했다. 정부는 2017년 8월에 “협회(Association)에 대한 법”이라고 부르는 최신법을 공표했다. 이 법은 2017년 11월부터 발효되었는데 크리스천들에게 더 많은 규제와 어려움을 준다. 이 법에 의하면 정부에 등록된 교회 소유의 예배 장소가 있어야 하고 정부에 등록된 목회자가 있어야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등록 허가를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 크리스천은 공개적으로 신앙과 관점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당한다. 종교적 신앙이나 정부와 다른 관점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높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라오스 정부는 공산당 이외의 모든 정치적 정당들을 금지한다. 독립적인 시민단체는 존재할 수 없다. NGO들도 모두 정부에 등록되어야 하고 종교적인 견해를 표현하면 안된다. 한편, 크리스천들에게 피해를 가한 마을지도자들이나 당국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른 지방으로의 이동 역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사역을 위한 이동은 허가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허가증이 없이 이동할 경우 벌금, 투옥, 추방의 위험이 있다. 미디어는 여전히 기독교를 식민시대의 잔재로 보도한다.

• **교회영역** : 모든 교회활동은 감시와 방해와 제재와 금지를 당한다. 비밀경찰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교인들의 수를 세고 설교와 예배내용을 기록해간다. 단 지명도가 있는 도시의 교회들은 좀처럼 제재를 받지 않는다. 법령 315로 인해 많은 종교단체들에게 큰 부담이요 비현실적이에요 종교행위를 제한하던 일들이 필수조항으로 성립되었다. 정부는 도시의 교회들에 대해서는 약간 관대하지만 시골 지역에서는 엄격하다. 교회 건물 밖의 활동들은 허가를 하지 않는다. 개종을 권유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위협을 받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018년 11월에 수도 비엔티엔 센터 쇼핑몰에서 ‘국제 가스펠 뮤직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정부는 그러한 페스티벌을 다시는 허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가스펠’이라는 단어를 라오 말로 번역하지 못하게 했다. 당국은 교회 참석자들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교회의 발행물에서 삭제할 것을 명령한다. 또 당국자들이 교회를 급습하여 성경과 기독교서적들을 압수해간다. 당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세한 리포트를 제출해야 한다. 목회자들은 수시로 체포와 구금을 당하며 때로는 고문을 당할 수도 있다. 기독교 전파를 막기 위해 단순히 괴롭히고 위협을 주려고 경찰서로 소환을 당한다. 모든 기독교 문서들은 정부와 LEC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부가 기독교 자료들의 수입과 수출을 통제한다. 교회 건축허가 신청은 엄청난 양의 행정서류와 절차가 요구된다.

WWL2020 라오스 박해보고

(2018년 11월 1일~2019년 10월 31일 기간)

살해된 크리스천 수	0 명
공격받은 크리스천 수	12 명
체포된 크리스천 수	32 명
공격받은 교회 수	5 개
크리스천 소유의 집과 사업장 공격 건 수	4 건

WWL2020 기간 박해 사례

- 사람들을 개종시키려 했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고

마을에서 추방당한 크리스천들의 사례가 여러건 보고되었다.

- 최소한 5개 가정교회들이 당국의 명령과 지역공동체의 위협들로 인해 모임을 중지해야 했다; 그 중 3개 교회는 건물 일부가 파괴를 당했다. 12명의 성도들이 체포되어 구금을 당했다. 몽족 크리스천들이 체포된 더 많은 보고들도 있다.
- 루앙남타(Luang Namtha) 지방에서 미국 크리스천 3명은 기독교문서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일주일만에 추방을 당했다.
- 보케오(Bokeo), 루앙프라방(Luang Prabang), 루앙남타(Luang Namtha) 지방에서 교회건물이 공격을 받고 파괴된 사례들이 보고되었다.-안전을 위해 상세한 내역은 비공개
- 크리스천들이 생계수단인 논밭이나 가게를 빼앗긴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라오스 개신교회

1630년부터 로마 카톨릭이 베트남의 예수회선교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라오스 입국을 시도하였으나 1878년이 되어서야 파리외방전교회(Paris Foreign Mission Society)가 들어와 메콩강의 반돈돈(Ban Dorn Don) 섬에 선교기지를 세울 수 있었다. 개신교는 장로교에서 1860년대에 태국(시암)에 교회들을 세우고 스웨덴 선교사들과 스위스 선교사들이 1890년과 1902년에 각각 태국에서 라오스로 이동해 들어갔다. 그러나 별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1948년 CMA(Christian Mission Alliance) 교단이 들어와 ‘라오 복음주의 교회’(LEC)를 세웠다. 소수족인 크메르 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소수 민족 그룹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었다. 교회는 평화로운 시기를 누리다가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어진 베트남 전쟁기간에 모든 것이 변했다. 1975년에 공산화된 후 많은 사람들이 라오스를 떠났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장하고 있다. 오늘날 라오스에는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해서 약 2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

라오스 기독교인 현황

정교회	0명(0.0%)
카톨릭	46,300명(20.4%)
개신교 기성교단	179,000명(78.9%)
독립교단	1,700명(0.7%)
무소속	100명(0.0%)
이중소속	0명(0.0%)
합계	227,100명(100%)

라오스를 위한 기도와 후원

- 오픈도어는 크리스천 신앙 때문에 신체적 공격을 당하고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는 라오스 성도들과 함께 합니다. 박해받는 성도들에 대한 법적 옹호 사역, 구제와 구호 사역, 사회경제적 생계 지원 사역을 하며, 또한 라오스 교회와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훈련들을 제공합니다.
- 성경을 비롯한 기독교 서적과 자료들을 공급하는 문서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정부의 통제로 인해 외부에서 인쇄한 인쇄물의 자유로운 반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필요한 신앙교재들의 번역과 인쇄 배포를 위해, 라오스 성도들이 자유롭게 성경을 구하여 읽을 수 있기 위해 기도해주세요.
- 지도자 훈련과 제자훈련 프로그램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라오스 성도들이 불교도와 정령숭배에 젖어있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보는 이들, 듣는 이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라오스 교회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등록된 교회가 되어 활동에 더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들이 불교 학교에서 받는 차별과 괴롭힘이 없어지기를, 크리스천 아이들이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점점 더 열린 사회로 바뀌고 기독교를 수용하는 종교의 자유가 신장되기를 기도해주세요.



라오스 오픈도어 사역



▲ 구호사역



▲ 구호사역



▲ 가정교회



▲ 제자훈련



▲ 찬양 교실



▲ 찬양 악기 교실



▲ 찬양 음악교실



▲ 보건교육 교구



▲ 생계훈련 지원 바셋재배



▲ 보건교육 그룹토의



▲ 보건교육

라오스의 ‘숨’ 형제 이야기



숨은, 라오스 북부 중국 접경 지역, 산들과 논밭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삽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가 주업입니다. 외딴 곳이고 공산주의가 깊숙이 뿌리내린 곳입니다. 마을 지도자의 말이 법이고, 마을 지도자는 정부의 감시의 눈 역할을 합니다. 이런 곳에서 기독교는 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집니다. 당국은 기독교보다 ‘덜 침투적’이고 ‘평화로운’ 불교나 정령신앙을 권장합니다.

자라면서, 숨은 불교만 알았습니다. 2010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숨은 2010년에 한 노인이 태국 기독교방송 라디오를 듣는 것을 보고 며칠간 저녁 식사 후에 그 노인과 같이 앉아서 그 라디오 방송을 들곤 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하나님을 자기의 삶 속으로 모셔 들이고 싶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개종을 하고 싶었어요. 그때 가정교회 교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작은 책을 주었어요. 성경이었지요. 나는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써있는 말씀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숨과 그의 아내 다라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다라는 세 번 임신을 했지만 모두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숨이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아내 다라가 다시 임신이 되었습니다. 숨은 하나님께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났고, 아기는 점점 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으로 인해, 숨의 아내와 친척들 이웃들까지도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숨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모임을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됐지요. 우리는 나에게 성경을 전해준 그 사람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마을 지도자가 분노하여 그에게 달려왔고, 숨에게 모임을 중지하고 기독교신앙을 부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고 숨은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에게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신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마을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을 주민들이 몰려와 그를 때리고 그의 집에 불을 질렀고 숨은 그 마을을 떠나야했습니다.

숨은 이주해간 새 마을에서도, 마을장으로부터 가정 내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숨은 치유사역을 통해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숨은 다시 그 지역 당국자들과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장은 한번 더 통보를 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고, 숨은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가 사람들에게 너의 종교에 대해서 말하고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걸 원치 않는다. 너의 종교는 외국에서 온 거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을장은 숨에게 ‘이런 미련한 놈!’ 이라고 하며 그의 이마를 찔렀습니다. 아주 화가 나서, “너가 고집을 부리고 미련해서 우리 마을이 발전을 못한다. 너 같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관들이 우리를 도와주려 오지 않는다구!”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후로 마을장은 숨이 만든 예배 모임을 중지시킬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어느 주 일날, 마을장이 직접 와서 예배를 중지시키곤 했습니다. 또 다른 주일에는 일부러 전체 주민들에게 일을 시키곤 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박해는 여전합니다. 어떤 때는 숨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한번은 숨의 돼지 아홉 마리 전부가 독살을 당했습니다. 또 한번은 주민들이 숨의 눈을 불태우고 그의 트랙터를 해체하여 부품들을 여기저기 던져버렸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숨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교사들에게 차별을 당했습니다. 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입니다. 숨의 아내 다라와 아들이 신체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도 마을장은 다라에게 소리질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무 가치가 없어! 내가 한 명 죽여봤자 한 주간이나 두 주간만 감옥 갔다오면 될거야!”

그러나 이런 공격들에도 불구하고, 숨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나는 항상 생각해요. 만일 사람들이 내 신앙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성경 말씀대로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요. 그들이 나를 죽이고 싶어한다 해도, 나는 문제 없어요. 죽은 후에 내가 어디로 갈지 아니까요.”

숨은 예수의 제자가 되면 고난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임을 압니다. 숨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요한 복음 15:6-8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숨의 믿음은 예수 안에 닿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고난의 슬픔에 마음이 에이는 듯합니다. 그러한 때는 고난 가운데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기억해봅니다. “저 혼자서 세상에 맞서고 주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으신다고 느낀 적도 있어요. 내가 처음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고 제자훈련을 시켜주었지요. 그런데 심한 박해가 오니까 아무도 곁에 있지 않았어요. 한 명, 한 명 다 떠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을 사용하셨습니다.”

2019년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숨은 오픈도어가 후원하는 가정교회 지도자 모임에 왔습니다. 북부 라오스 지방에서 자기처럼 박해를 받는 다른 성도들을 만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모임에서, 이들은 자기가 속한 마을에서 앞으로도 계속 빛과 소금이 되어 변화를 일으켜나갈 것을 헌신했습니다. 숨은 말합니다. “우리 모임은 성도들이 박해에 대해 준비될 수 있도록 돕고, 교회 지도자들을 만들고,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가도록 돕습니다. 또 가장 약하고 가장 박해받는 이 북부 지역의 교회들을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숨은 이러한 사명을 성취할 전략 중의 하나가 신자와 비신자들이 같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숨과 아내 다라는 자기들이 개설한 글자교실이 하나의 좋은 시작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해 동안, 다라는, 오픈도어의 글자교실 훈련과 교재들을 이용하여, 20명의 청년과 장년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숨은 말합니다. “아내는 우선 우리 마을에서 믿는 사람들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웃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도 참여하고 싶다고 했어요. 글자교실 학생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물론 전에 저를 박해했던 거 때문에 멧쩍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우리는 예배 모임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글자교실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숨은 신앙 때문에 집에서 쫓겨난 여성들과 청년들에게 실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봉쇄 때문에 몇 개월간 하지 못했던 농사일을 이제 서서히 다시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주님께서서는 이 봉쇄 기간 동안 가족들이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 덕분에 숨은 박해받는 자기가 혼자가 아니고 잊혀지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숨과 그 가족을 위해, 앞으로 다시 시작될 글자교실 및 그들의 섬김이 라오스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열매 맺도록 계속 기도해주세요. 숨은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그것도 유익이고,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 것입니다.”

라오스의 ‘사방’ 형제 이야기 무속인에서 박해받는 주의 종으로

사방은 정령숭배를 하는 마을에 삽니다. 그 마을은 라오스 정부가 관광지로 홍보하는 곳으로, 고급 녹차, 대나무 종이, 사마니즘 의식들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 마을을 방문할 때, 부족의 무속신앙(사마니즘)을 전시하는 박물관 뒤로 성도가 100명이나 되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전에 무속인(샤만)이었던 사방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방은 원래 무속인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10살때부터 사마니즘(무속)과 여러 귀신들의 속성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을의 무속인 노인을 통해 배우고 또 나 스스로 터득했지요. 그 노인은 자주 나에게 사마니즘은 좋은 것이라고 말했고 그 말은 나의 흥미에 불을 붙였지요. 나는 반드시 우리 마을의 샤만(무속인)이 되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2년만인 12살에 사마니즘의 원리들을 배웠고 흑암의 마술을 하는 기초를 배웠습니다. “14살, 15살 무렵에 나는 원리들을 실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마니즘이 좋은지 나쁜지 보다 그저 내가 샤만이 되어서 귀신들을 조종하는 능력을 가지면 우리 마을을 위해 좋을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정령숭배를 해서 모든 사람이 귀신들을 두려워했어요. 누구든지 귀신을 불리거나 쫓아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마을에서 중요한 인물이고 그 사람이 샤만이지요.”

18세가 되어 사방은 결혼을 하고 주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결혼 생활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방은 결혼생활의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결심했지만 상황은 더 내리막으로 치달았습니다. 결국 혼란스러워져 자신감을 잃고 자기가 믿던 주술에 대한 믿음도 없어졌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는 어릴 때 학교 친구에게서 들었던 가장 위대한 신에 의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

니다. “내가 전학 간 학교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한 아이가 나에게 예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어디에나 계시는 신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흥미를 느꼈지만 더 이상은 알고 싶지 않았고 단지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가 24세가 된 2004년, 다른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가 또 그 위대한 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방은 즉시 무속신앙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자기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행했던 주술이 악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방의 가족 전체가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행하는 정령숭배 의식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이 됨으로써 사방 가족은 마을에서 버려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당국은 그들의 신앙을 공산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마을지도자와 당국자들은 사방이 한때 마을의 샤만으로서 청년위원회의 리더로서 중요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무시하지 못하면서도 그를 심문하기 시작했고, 더 고위층에 보고했습니다. 사방은 경찰에게 반복적으로 심문을 당했습니다.

사방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싶은 열정이 그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 10명에게, 그 다음에는 마을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 있는 성경 학교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고향마을에 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믿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박해도 심해졌습니다. 사방은 말합니다 “그들은 내게 욕을 하고, 나를 죽이고 우리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했어요 나를 해하려는 수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매일 협박을 하고 나를 납치하겠다고도 했지만 내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고 나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2008년에, 사방은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고 당국자들도 예수에 대한 설교를 막으려 왔습니다. 그러나 사방은 말씀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당국은 사방을 체포할 기회를 노리다가, 사방이 일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두 사람을 추천한 것을 알고는, 그를 인신매매범으로 체포해서 투옥시켰습니다.

감옥에서는 그의 혐의에 대한 언급은 없고 대신에 반복적으로 기독교신앙을 버리고 예전 신앙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서명을 하라는 요구만 받았습니 다. 그가 거부하자 경찰은 그를 감금하고 습하며 흉악범이 있는 감옥에 넣었습니다. 양쪽 다리에는 5kg이 나가는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감방은 가로 4m 세로 3m 크기에 18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더럽고 좁은 방에 죄수들의 계속적인 흡연으로 사방은 폐가 수축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사방은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믿은 걸 후회하지 않았어요. 나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했기 때문에 인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감옥 안의 내 상황을 떠올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신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평강이 있지요.” 라고 사방은 말합니다.

몇 개월 후, 사방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경찰이 나를 감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말했어요. 내가 고소된 죄목이 크지만 1500만 라오 킵(약 1800달러)을 내면 석방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경찰에 가서, 우리가 가진 건 550만 라오 킵(약 660달러)밖에 없다고 사정했지요. 경찰은 그 돈을 받고 나를 풀어주었어요. (기독교신앙을 버리겠다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내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풀려난지 열흘 만에, 경찰이 다시 와서 그를 감옥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또 감옥에 가서 그 끔찍한 경험을 다시 해야 한다니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경찰이 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감옥으로 돌아가자, 심문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교도원들은 사방에게 신앙을 버

릴 것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사방은 지난 번과 같은 감방에 4개월을 더 갇혀 있었습니다. 사방은 이제 감옥 밖에 있지만, 여전히 당국자들의 감시 아래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또 전하는 모습이 잡히면, 도망갈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경고합니다.

사방은 오픈도어가 주최하는 “폭풍 속에 견고히 서기(SSTS)”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교회 오픈도어 지도자 훈련에도 참석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다른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 서로를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은 올해 오픈도어가 후원하는 글자교실을 자기 교회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봉쇄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안전한 시기가 되면 시작할 것입니다.

사방의 사역과 라오스의 부족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방은 라오스 북부 지역의 교회들을 위한 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북부 라오스의 4개 지방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여기에는 약 51개 마을들과 3,0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앞으로 5년간, 나는 이 지역에 10개~15개 가정교회들을 세우기 원해요. 가정교회는 40~50명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거예요. 나는 더 많은 헌신된 목회자들이 나와서 이런 교회들을 인도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북부지방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라오스 부족마을에 뿌리 깊은 정령숭배(애니미즘)는 아직도 일부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줍니다. 라오스 시골의 부족마을에서는 가족관계가 매우 긴밀합니다. 부모나 조상에게 거역하는 자녀들은 호적에서 제명을 당합니다. 아무 유산도 받을 수 없지요. 이런 마을에 세워지는 교회들 역시 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이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정령숭배로 돌아갑니다. 가족들이 주술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방은 이와 싸우기 위해, “악한 영을 대적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와 금식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 사단의 세력은 점점 더 약해져서 결국 나에게 힘을 행사할 수 없게 되지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상, 박해는 그 사명 성취에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방과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인도, 젊은 목회자, 공산반군 낙살라이트에 의해 살해

인도 중부 '마하라슈트라' 주의 한 지역(Bhamragad)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목회자, 문슈 타도(Munshu Tado)가 7월11일에 낙살라이트(Naxalite:모택동주의 공산반군)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한때 낙살라이트 대원이었다가 크리스천이 된 문슈는 다른 세 가정과 함께 기독교 신앙 때문에 마을에서 추방당했었고, 몇 개월 전부터는 낙살라이트들을 피해다녔습니다. 크리스천 활동을 중지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낙살라이트들은 문슈가 경찰에 자기들의 행방을 밀고해왔다는 거짓 주장을 살해의 이유로 들었으나, 낙살라이트의 크리스천 살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동안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더 많은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이란, MBB 형제 3명 감형, 4명 재수감



10년형을 받고 복역중인 이란의 MBB(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천) 형제 3명이 6월22일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유세프(Yusef Nadarkhani) 목사님과 자르만(Zarman Saheb)은 6년으로, 모하마드레자(Mohammadreza Omid)는 2년으로 형이 줄었습니다. 한편, 후세인, 칼릴, 카말, 모하메드(Hossein Kadivar, Khalil Dehghanpour, Kamal Naamanian and Mohammed Vafadar) 4명은 작년 7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소환되어 6월2일부터 에빈(Evin) 감옥에서 5년간의 투옥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초에 4주간에 걸쳐 체포된 9명의 “이란교

회(Church of Iran)” 소속 성도들의 일부로 죄목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시오니즘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19 감염율이 높은 이란에서 특히 열악한 환경의 감옥생활을 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최소 12명의 가정교회 성도들 체포

6월30일, 테헤란에서 혁명수비대 보안요원들이 한 MBB 성도의 가정을 급습해서 모여 있던 약 30명의 크리스천들 중 6명을 체포해갔습니다. 이들은 크리스천 네트워크에 침투해서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명단을 가지고 그 명단에 이름이 있는 이들을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아르메니아-이란인 크리스천과, MBB 성도들입니다. 또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연락처 상세내역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어서 현장에는 없으나 명단에 있는 다른 MBB 성도들의 가정집을 찾아가 수색을 벌였고, 결국 3명이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같은 날, 관련 조치로, 하메단 지방 말라예르에 사는 3명의 MBB 성도들이 다음날 혁명수비대 정보국에서 심문을 받도록 소환됐습니다. 이들 3명은 심문을 받기도 전에 구금되었다가, 3천만 토만(약 1,5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7월2일에 풀려났습니다.

터키, 개신교 사역자 추방 재개, 성소피아 성당 모스크로 전환

조이 안나 크로우(Joy Anna Crow)는, 미국 플로리다 출신으로, 터키인 남편 루트퓌(Lutfu Subasiguller)와 7년 전에 결혼해서 터키에 정착했습니다. 루트퓌는 앙카라에서 개신교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조이는 터키에서 태어난 세 자녀를 키우는 주부인데, 지난 6월5일, 터키 이민국으로부터 아무런 사유도 없이 터키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조이는 지난 18개월간, 비자연장이나 재입국이 불허된 50명 이상의 국외거주 개신교 사역자들 중의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스탄불 개신교단체 의장인 티무르 토푸즈(Timur Topuz)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추방이 잠시 중지되었다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7월10일 터키 정부가 성소피아 성당을 기존 박물관에서 이슬람 모스크로 전환함으로써 터키의 이슬람 강경화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잠비크, 북부지역,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새로운 지역센터가 될 위험



이슬람 근본주의 전사들(AI Sunnah wa Jama'ah aka al Shabaab)이 6월 27일, 모잠비크의 북부지역 마을(Mocimboa da Praia, Cabo Delgado)을 공격했습니다. 성당과, 중학교, 병원, 수십 채의 집, 자동차, 가게에 불을 지르고, 감옥의 죄수들을 풀어주고 까만색의 IS(이슬람국가) 깃발들을 게양했습니다. 또한 군대 병영을 포위하고 무기들을 탈취했습니다. 목격자에 의하면 거리가 시체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3월, 4월에도 공격이 있었던 바, 이 같은 상황이 통제되지 못하면, 북부 모잠비크는 이슬람 극단주의의 지역적 센터가 될 위험이 있다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지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피해 지역에서 20명이 넘는 교회지도자들과 300 가정 이상이 오픈도어에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사제폭탄 투하로 마을의 유일한 크리스천 모녀 사망

실피(Shilpi 30세)와 5세의 어린 딸 수프리야는, 지난 5월31일 새벽 1시반, 집에서 자고 있는 사이에 창문으로 던져진 사제 폭탄에 의해 심한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6월4일과, 16일에 각각 숨졌습니다. 사건 당시 남편은 옷 공장에서 야간근로 중이었습니다. 비탄에 빠진 남편 리도이(Ridoy)는 말을 잃었고, 현지 사역자가 대신 이 사건이 크리스천 박해사건임을 전했습니다. 이 가족은 그 지역에서 유일한 크리스천들이었고 그 지역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이슬람학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남편이 용의자 이름을 대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무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편 리도이의 안전도 염려되고 있습니다. 기도해주세요.





후원요청

오픈도어 코로나(COVID-19) 긴급 구호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라크에 있는 2,000가정이 지난 5월-6월 동안 식량패키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IS에 의한 강제 축출과 경제위기에 이어서,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 지역 크리스천들은 다시 한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도움을 호소하였고 우리의 후원이 그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있는 전세계 박해지역 성도들의 긴급구호에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코로나후원계좌 :
SC제일은행 221-10-011008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오픈도어 연중캠페인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고린도전서12:26



'월 10,000₩ 개인후원자' 500명,
'월 50,000₩ 후원교회' 100교회
기다립니다!

전세계적인 환경이 점점 더 기독교 박해지역의 성도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만들고 있고 축복받은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담과 책임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오픈도어는 더욱 적극적으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국오픈도어는 지정헌금 90프로를 박해받는 현지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고 사무실운영비를 위한 모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초창기와 같은 적은 수의 전임 인력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느라 다각적인 홍보와 개발업무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오픈도어의 운영과 개발을 위한 월 1만원 정기후원자, 월 5만원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시고 주위에 소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름(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은행	출금계좌번호	
출금액	10,000₩	출금일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한국오픈도어선교회)

> 알립니다

-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에 관련된 강의나 설교를 원하시는 단체/교회는 선교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월간 오픈도어 소식지와 기도월력, 월간 북한개발소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포스트' 에서 한국오픈도어선교회를 검색하시면 주간 박해소식과 기도제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WWL2020 박해지도와 저금통을 신청하시는 분께 보내드립니다.
- 카카오톡으로 주간박해소식과 기도제목을 신청하시는 분께 보내드립니다.
- 오픈도어 '후원자 스토리' 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오픈도어 선물' 을 드립니다.
- ▶ 문의/신청: 02-596-3171 / 010-7548-3171 / odsk@opendoors.or.kr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20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국가의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의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opendoors.or.kr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4. 정기후원으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 번호:	이름(예금주):	생년월일(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출금동의서명:

작성하신 후에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전화: 010-7548-3171)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